

하여 宮庭의 裝飾과

車輿冠服의 制作、

土木建築等各方面

에서 活躍하여 匠學

의 名家로 알려져

있었던 모양인데 이

그림이 갖는 機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 上代로부터 그와

같은 御用畫를 發達

시켰을 것이며 歷代

의 畫員들이 이에

從事한 것은 當然한

일이었을 것이다.

서울大學校博物館

藏、大快圖나 國立

博物館藏 壽用楔帖、

李秉喆氏藏 陵行圖、

金承鉉氏藏 平生圖、

全濟玉氏藏 國葬圖、

等は 모두 이와 같은 그림들이거나와 界畫의 技法은 近世의 耕織圖나 風俗畫에도 많이 援用되었던 것을 많은 그림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을 것이다.

俯瞰法도 中國에서는 六朝時代로부터 차츰 完全에 가까워지만을 把握되기 시작한다. 한데 高句麗古墳壁畫에서도 案床의 人物과 같은 데서 그 예를 볼 수가 있다. 俯瞰法은 西洋의 透視法과 달라서 遠景에서 視點이 縮少 消失되지 않고 構圖統一의 中心인 焦點이 있을 뿐이며 그 視點의 上昇으로 因하여 三次元的인 空間을 顯出시키게 되는데 그 發生過程에서 보더라도 透視法이 지니는 科學性 寫實性에서 出發하지 않고 記憶表

象에 의한 觀念의 特性에서 出發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劉淑은 畫員이었던 만큼 朝廷의 儀式圖나 圖書의 插畫、其他 圖面의

制作에도 從事하였으리라 하고 짐작되며 界畫에 저지아니 손을 내었을 것

으로 짐작이 된다(參考 會參御眞特蒙天恩 書畫徵)

望月圖의 界畫의 技法은 만드시 그의 畫員으로서 衣食을 依存한 一面

工人的 立場과 結付시킬 것은 없다 하더라도 아주 沒却할 수도 없는 일

일테지만 이 技法이 近世에는 個人的인 草堂、庵子、茅屋、書齋 등을 그

리는데도 많이 援用되어 文人畫의 自由로운 技法으로 傳受되어온 一面

도 있으니 이 그림은 後者의 境遇에 屬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는 建物을 畫面의 對角線上에 配置하고 建物描寫에만 界尺을 使用

하였으며 人物과 周圍風景은 自由로운 墨筆로 處理하였는데 界尺의 使

用에 配애를 쓴 모양이나 正面、側面、上面關係의 어떤 部分(집옹, 마

루, 기둥)을 正確히 描出하지 못한 難點이 있다. 視點上昇의 角度는 四

十五도가량일 것이며 따라서 俯瞰法의 效果는 正確에 가깝고 快適하다.

舍廊과 들은 開放되고 活氣를 띠우고 있으나 人物의 動作은 오히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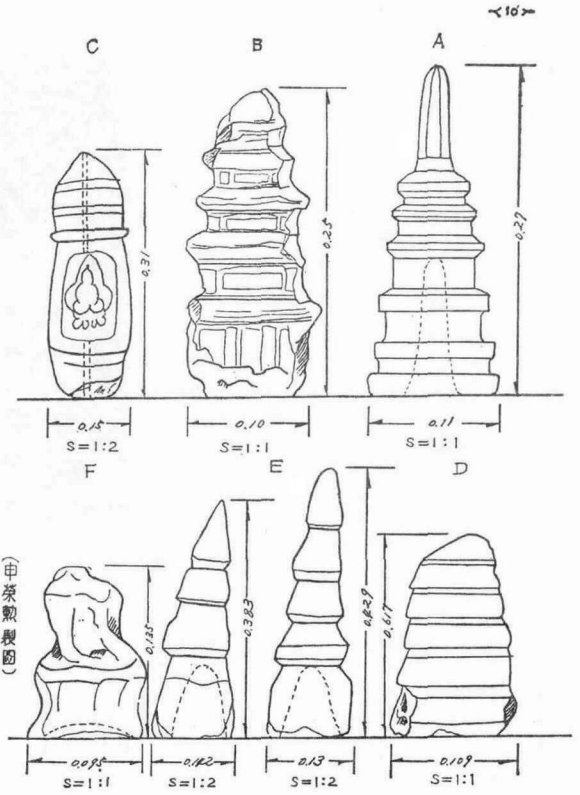
오르는 달과 無關하고 달은 문이 닫힌 內室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하다. 中國式으로 畫題를 分類한다면 閑適類에 들 것이다.

### 慶州出土의 土塔

黃 壽 永

數年來 慶州出土라고 傳하는 土塔 九點을 過眼한 바 있으므로 간단한 實測圖를 넣어 紹介한다. 新羅의 土塔은 日帝時에도 相當數 發見되어 國立博物館을 비롯하여 內外人의 所藏이 되었는바 그 集成과 分類를 위한 資料를 삼고자 한다. 韓國土塔은 거의 方形層塔樣式을 보이고 있는 바 이같은 特色은 日本과도 다른 點이며 비록 모두가 信仰的 所産이라 하더라도 當代 塔樣式과도 緊密하게 關聯되어 造成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A) 方形으로서 二層基壇上的 三層塔인 바 新羅石塔의 典型樣式을 模하였다. 各部의 細部는 아니 보이고 塔頂에는 露盤과 六角刹柱가 놓여 있어 圓錐形深孔이 있고 全體에 胡白粉이 두껍게 덮혀 있다. 土質은 灰黑色이며 堅緻한 燒成에 의하였다. 韓弼東氏舊藏인 바 이와 同大의 遺例二點을 서울 李洪根氏가 所藏하고 있다.

(B) 方形三層塔으로서 單層基壇의 中石을 兩隅柱以外에 撐柱二本으로 區分하고 있음은 新羅統一期의 石塔과 同一하다. 各層屋蓋는 二~三段의 層級形받침을 갖고 있으며 塔身에도 隅柱와 塔身받침 一段을 새겼는데 相輪部는 큰 露盤을 보일 뿐 그 以上은 缺失하였다. 土質은 赤褐色인 바 一面이 扁平하고 彫刻이 없음에서 博佛같은 곳에 附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全靈弼氏所藏(本紙一四、秦弘燮氏「慶州出土三尊博佛의 또한例」參照)

(C) 方形으로서 基壇은 一段을 이루고 第一塔身만은 長大한데 그 四面에 長方形 龕室을 마련하고 蓮座上의 座佛各一軀를 새겼으며 佛身에는

二重輪光形의 光背가 보인다. 屋蓋와 塔身은 遞減되었고 現在 三層이며 頂上에 徑約 1cm의 圓孔이 있어 下底까지 貫通되었다. (刹柱의 偶意로 보인다) 全體에 塗白粉한 痕跡이 보이니 심한 洗滌으로 四方佛은 磨損되었으며 土質은 灰白色으로 砂粒이 混在하였다. 慶州 芬星寺塔에서 비롯한 博佛系를 模한듯한데 慶州 月城址出土로서 同地 昔庸湜氏에 의하여 서울大博物館에 寄贈되었다. (慶州博物館에 月城附近出土의 初層四面佛의 遺品이 하나 陳列되어 있다).

(D) 方形으로 單基上에 五層의 屋蓋가 重疊되었는데 추너는 짧으며 塔身은 없고 다만 區劃線이 있을 뿐이다. 塔頂과 下底는 平坦하며 土質은 淡灰色으로 一部에 黑色이 남아있는데 (C)와 同系樣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韓弼東氏舊藏)

(E) 方形의 多檐形層塔으로서 各層의 樣式은 同一하며 急峻한 屋蓋面을 보이는 바 塔身으로서 層間에 單條의 帶線같은 것이 둘러 있을 뿐이며 最頂은 角錐形을 이루고 있다. (但 大形의 上二段은 別個의 것인) 土質은 赤褐色이며 下底에는 큰 圓孔이 깊게 파져 있다. 이 같은 類品은 國博에도 所藏되어 있다. (高橋健自·石田茂作共著「滿鮮考古行脚」一〇三頁 插圖十四「朝鮮의 土塔」參照)

(F) 二層의 圓塔形으로서 初層塔身은 整齊하지 못하나 八面을 이루었으나 屋蓋는 圓形에 가깝다. 下底는 거의 方形인 바 內灣되었고 頂上은 缺失되었다. 土質은 赤褐色인데 小品이나 그 樣式은 注目할만하다 韓弼東氏舊藏(石田茂作:「土塔」就て「考古學雜誌」十七卷六號의 第二圖「朝鮮의 土塔」ⅦⅧ의 平壤 및 慶州出土의 圓形塔參照)

### 榮州 黑石寺의 石造佛像

秦 弘 燮

榮州郡 伊山面 石浦里 泉谷에 新築한 黑石寺가 있고 그 後面 岩石에